

[KPCA HOT NEWS 2]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 중소기업적합업종 등록 신청 배경

코로나19 상황 이후 대기업의 방역소독 시장진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여 77%가 소상공인인 소독업계를 보호받기 위해 본 협회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록 신청하였다.

◆ 추진 경과

- 중소기업적합업종 등록 신청 : 2022. 5. 3(화)
- 동반위 조정협의회체 운영:
2023. 3. 17(금), 3. 3(목), 3. 31(금)
- 동반위-적합업종 실무위원회 : 2023. 4. 6(목)
- 동반위 본회 : 2023. 4. 25(화)

◆ 중소기업적합업종 등록 심의 결과

2022년 5월 3일(화) 동반위에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이하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지 1년여만에 2023년 4월 25일(화)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75차 동반위 본회의에서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결

정하였다.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방역소독업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2023. 5. 1. ~ 2026. 4. 30.)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전문 중견기업 세스코를 제외한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동반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협력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협회에서는 2023년 6월 16일 1차 상생협의회를 시작으로 대기업 측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하이마트(주)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에 따라 방역소독업의 사업영역보호와 상생협력을 위해 2023년 5월 10일(화)에 방역소독업 사업을 철수하였다.

협회에서는 대기업 시장진입으로 인한 영세소독업자들의 피해 최소화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내용

권고사항	<p>대기업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은 신규 진입 자제 ■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공동주택 의무소독 시장으로 확장을 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 공공조달, 공공근로사업 - 전문중견기업 1개사는 확장자제 적용 제외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①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절차 및 방식을 상호협약하고, 상생협력이 필요한 ②약품 및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기업(7개사) : (주)삼양인터내셔널, (주)에스텍시스템, (주)캡스텍, (주)한샘개발, HDC랩스(주), (주)KT서비스남부, (주)세스코 ※ 롯데하이마트(주) : 방역소독 사업 철수(2023년 5월 10일)
권고기간	2023. 5. 1. ~ 2026. 4. 30.(3년간)